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근면과 정직, 희생의 소(牛)를 배우자

새해 새날 새 아침, 동해 바다 겸 푸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이 솟구쳐 올랐다.

저도 툭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태양이 솟구쳐오르기까지 어둡고 추운 긴 밤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했다. 동 터 오는 새벽을 지나서 어둠에 덮힌 온 세상을 환히 밝히기까지 태양은 정해진 순리에 따라서 자기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길에서 자기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만이 마침내 빛을 발할 수가 있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소(牛, 丑)의 해이다. 소는 생긴 모습부터 쥐나 고양이처럼 작지 않고 사람 보다도 더 크다. 움직이는

동작도 경박하지 않고 점잖고 우직(愚直)하다.

살아서는 평생을 쟁기질로 단단한 논과 밭을 갈아엎어서 벼와 보리, 콩 등 농작물을 심고 기르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풀을 뜯어 먹는다. 언제나 불평이나 말 한 마디 없이 주인이 하는 대로 해준다.

죽어서는 살과 가죽, 뼈까지 모두 자기를 부려 먹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준다. 그러나 소도 다른 동물들과 같이 말이 없을 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잘 알고 있다.

소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농사일에 힘들어 하거나, 자식들의 교육비 등에 쓰기 위하여 장날에 내다 팔려고 하면, 어느 틈에 는

킴으로 알고 하루 전에는 밥(여물)을 먹지 않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장터로 팔려가는 날에는 자기가 살던 집을 몇 번씩 뒤돌아보고 슬픔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마치 못해 주인을 천천히 따라간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는 '소통령(牛)'이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다고 한다.

장터로 팔려가던 소들이 고개 정상에 주막 앞에 똥을 많이 누어 산의 모양이 소똥처럼 생겼다는 유래가 전해져 온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0. 12. 28. A14). 동물들은 밀렵에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거나, 다시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소변이나 대변으로 흔적을 남긴다.

팔려가는 소는 마지막 몸부림이고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싶었는지 모른다.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는 소가 맹수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소의 헌신과 의리를 기리는 '우혜(牛惠)'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 농경사회에서 부(富)와 재산을 상징하는 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소와 관련된 지명은 731개로 십이지(十二支) 동물 중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 소 관련 지명 중에는 마을 이름(566개, 77.4%)이 많다.

전남 나주시에는 아홉 마리 소를 기르면서 마을이 번창했다고

해서 '구축(九丑)'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

지난해 8월 11일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에 있는 무인도인 난초섬에서 암소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소의 귀에 달린 귀표를 보니,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한 축산단지에서 지난해 8월 8일 내린 집중 폭우로 3일 간 67km를 떠내려가면서 표류하면서 해엄쳐 난초섬에 도착했다 (조선일보 2020. 8. 13(목), A12).

이 암소는 새끼를 밴 상태로 알려졌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뱃속의 새끼를 살리려고 3일 간 굶으며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급류에 휩쓸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급류에 잠겨 흙탕물을 먹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물 속 모란돌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얼마나 눈물겨운 사투(死鬪)를 벌였을까. 말 못하는 소의 모정(母情)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지난해 8월 7일에는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700여 마리의 소가 죽어서 위령제를 지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2000년부터 사회상에 대하여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응답자 906명의 32.4%)라는 신조어(新造語)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인데,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의미이다.

2위는 낮이 두꺼워 뻘뻘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顏無恥)(21.8%)라고 한다. 특히 자리가 바뀌어 타인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잣대가 다른 정치인들의 언어와 행동이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소년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소설가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의 수필 '우덕송(牛德頌)'이 생각난다. 봄부터 가을까지 힘든 농사일을 모두 끝내고 한 겨울, 주인 농부가 썰어준 여물을 먹고 앉아서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모습은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군자(君子)의 모습 같다고 춘원은 써 놓았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잡으면 맛이 간 사람들처럼 초심을 잃고 민심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각박한 사회에서 소미 해 올해는 근면과 정직, 남을 배려하는 상생과 희생을 소에게서 배우자고 하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일 것인가.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legal, and medical.

Table with 2 columns: 호남신문 and 대표전화.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address.

K급 소화기로 안전한 주방을

최근 들어 TV에 소위 말하는 "덕방, 쿡방"이 많아지면서 주방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졌으나, 여전히 주방은 화재위험성이 큰 공간이며 이와 관련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약 20%는 유류(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이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취급시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용유화재 발생 시 당황해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열을 흡수해 빠르게 증기로 기화되면서 순간에 기름이 튀어 오르고 불길 이 상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화기 등으로 불을 끄는 것도 식용유의 낮은 발화점으로 인해 재발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식용유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가 바로 K급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기구로,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원리이다.

2017년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

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 등은 최소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순신/동북119안전센터소방경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